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대출 금리가 한달새 0.32%포인트나 급등했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넉달 연속 콜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오름세가 고정금리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서민 대출자들이 지금난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신한銀도 8%대 진입=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주 초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금리는 6.33~7.93%로 지난 주초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6.57~8.07%와 6.67~8.07%로 각각 0.09%포인트 상승하며 최고금리가 나란히 8%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나은행은 0.07%포인트 상승한 6.97~7.67%로 고시하며 최저금

# 대출금리 오름세 전방위 확산

**주택대출 금리 한달새 0.32%P 급등  
CD·신용대출·고정금리까지도 '들썩'  
서민'이자 폭탄' 휘청... 자금 경색 우려**

리가 7%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6.58~8.04%와 6.71~7.99%로 고시해 최저금리가 지난 주초보다 각 0.05%포인트와 0.07%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추가 상승 예상=CD금리가 최근 급등세를 재개하면서 CD금리에 연동되는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금리도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지난 8일 5.

67%로 2001년 6월 12일의 5.70%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금리는 지난 8월 8일 이후 지난주 말까지 날간 0.57%포인트 급등하며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날간째 동결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업계에서는 CD금리가 단기 급등했지만 은행들이 CD 발행을 통한 대출 재원 마련을 지속하고 있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CD 순발행 규모는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27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작년 같은 기간 2조 4천억 원의 10배를 넘었다. 다음 달부터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인자에 대한 손금 인상 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될 경우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주택대출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 대출자들이 늘어난 이자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약 221조 5천억 원인 주택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부 대출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한 달 새 6천 38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CD금리와 함께 은행체 금리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 금리 오름세가 고

정금리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일부터 직장인 신용대출과 스마트론, 디비론, 팝론 등 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일제히 0.15%포인트 인상했다.

또 고정금리부 주택대출인 굿뱅크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최대 0.50%포인트나 인상됐다. 6개월 변동주기 기준금리는 0.20%포인트, 12개월은 0.40%포인트, 24,36,60개월은 0.50%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아파트 파워론 III의 3년 고정금리는 6일 현재 7.56~9.06%로 작년 말보다 1.44%포인트 상승하면서 9%를 돌파했으며 지난 주말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경영지표 보니

## 대기업-中企 양극화 고착

지난 10년간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등 경영지표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유지되거나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수가 5~299명인 중소제조업 4천 100개사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 5.45%였던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2년 동안 오르다 1998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해 지난해 4.31%까지 떨어졌다.

반면 제조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한국은행(자료) 같은 기간 최저 5.98%에서 최고 9.72%까지 부침을 거듭 했지만 중소기업에 비해 많게는 4%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특히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01년까지만 중소기업이 앞섰으나 이후 대기업의 금융비용에 대폭 감소하면서 2002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추월한 뒤 지난해 중

소기업의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영업이익률은 금융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비율은 1996년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2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 대기업 571.82% 중소기업 249.78%를 기록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300% 내외였던 대·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양쪽 모두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1년까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호했던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역시 2002년에 역전돼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85.49%, 중소기업은 145.35%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

자기자본비율도 1996년 각각 24.90%, 25.25%에서 지난해 53.91%, 40.76%로 대·중소기업 모두 개선됐으나 2002년 순위가 역전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연합뉴스

## 女사장 4년간 23% 급증

### 상용근로자도 여성 강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여성 고용주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여성의 남성의 2.3배에 이르는 등 맞벌이와 여성 사회생활 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가 고용사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현재 종업원을 두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여성은 2003년 10월 138만 9천명에서 2004년 10월 136만 5천명, 2005년 10월 133만 9천명, 2006년 10월 127만 5천명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121만 2천명으로 4년간 12.7% 감소했다.

종업원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여성은 2003년 10월 138만 6천명에서 올해 10월에는 152만 1천명으로 9.7% 늘었지만, 같은 기간 남성 자영자는 312만 4천명에서 304만 명으로 2.7% 줄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근로자 고용에서도 여성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변화는 남성들의 관심을 일자리로 줄여들면서 가계 소득이 줄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남성 고용주는 2003년 10월 138만 9천명에서 2004년 10월 136만 5천명, 2005년 10월 133만 9천명, 2006년 10월 127만 5천명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121만 2천명으로 4년간 12.7% 감소했다.

종업원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여성은 2003년 10월 138만 6천명에서 올해 10월에는 152만 1천명으로 9.7% 늘었지만, 같은 기간 남성 자영자는 312만 4천명에서 304만 명으로 2.7% 줄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근로자 고용에서도 여성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변화는 남성들의 관심을 일자리로 줄여들면서 가계 소득이 줄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

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직장인 61.5% 경조사 눈도장 찍는다

온라인 취업 사이트 사람인은 리서치 전문기관인 풀에버와 함께 직장인 2천 121명에게 '직장생활에서 눈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86.4%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61.5%는 '현재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눈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복수응답) '경조사에 참석한다'(38.1%)가 가장 많이 답했다. '수시로 인사한다'(35.9%), '항상 표정관리를 한다'(26.0%),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25.2%), '등산, 축구 등 업무 외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는'(20.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직장인 58.2%는 눈도장을 찍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현대카피탈	현대카피탈 광주상무지점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380-8360
네오개발(주)	[건설 공무/일반사무/생산]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361-2610
㈜대창 E&T	[SK텔레콤] 개통업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383-6831
케이무역	배송직/경리직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2	062-944-0030
토암건설(주)	현장시공 및 공무 - 과장급 경력사원	초대졸/경력5년	3000~3200	12/12	062-604-1336
신호케미칼(주)	영업직(신규)/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2	062-525-4589
㈜전남프로축구	[전남광양 프로선수단] 지원 업무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3	061-815-0122
케이무역	창고입출고, 재고관리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3	062-944-0030
㈜덕성하우징	[광주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및 인력관리업무]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14	041-576-5900
㈜그린에스아이	웹프로그래머(PHP/ASP)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12/14	062-675-7118
㈜스킨포유	(광주 동구) 피부관리사, 주 5일근무/경력자, 실장급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2-3443-3447
삼성출판사서광주교육본부	유치원 영어교사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5	062-373-5346
풀빛유동영농조합	정규직 사무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15	061-453-7092
㈜기민정보시스템	광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인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7	062-653-2879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 생산자물가 상승률

### 3년만에 최고

#### 고유가 여파 전년동기비 4.4% 올라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지수는 117.4(2000년 = 100)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4% 올랐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의 작년동기 대비 상승률은 2004년 12월의 5.3%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전월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올해 2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농림수산물이 출하증가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공산품과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데 외향화물운임 상승에 따른 서비스 물가가 상승해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적립 포인트로 기부하세요"

### 신용카드사 프로그램 가동

신용카드사들이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적립해온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회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카드는 구제군과 함께 포인트 자선냄비 행사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와 ARS(☎1588-1688)를 통해 적립된 카드 포인트나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 모금된 성금은 내년 1월 구제군 대한본원에 전달한다.

KB카드 홈페이지에도 대한적십자사·구제군대한본원·굿네이버스·밥상공동체·사랑의 열매·유니세프 등 6개 기부단체에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신한카드는 일시불·할부 사용액의 0.5%를 고객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이틀다운 카드'를 판매 중이다.